

## 국무회의

화물연대 파업사태 원인 관련 시장붕괴의 요인으로 내재돼 있으므로 제도 개선토록 하십시오.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부산 화물연대 집단행동으로 운송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 위법에 대해선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강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중단 사태에 대해 총리 중심으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하고, 화물연대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물류문제가 위기.비상사태이나 위기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문제를 옛날에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했지만 지금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계속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어느 한 부처가 감당하기도 적절치 않으며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위기대처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사태 원인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교섭지위의 불균형 등이 시장붕괴의 요인으로 내재돼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토록 하십시오.

전자전부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며 정부 혁신과제와

맞물려 있어..

전자정부는 정부혁신과제와 맞물려 있으며 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정부조직이 이를 감당해야 할 것이므로 정부부처 내에서 국가CIO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는 정보축적 매커니즘이 핵심이며 누구라도 쓸 수 있게 하는 정보공유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전 시장에 내놓은 것 가지고는 안되고, 참고안의 것까지 다 꺼내놔야 할 상황이며 지금부터라도 참고 안에 넣는 것들을 차곡차곡 분류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관들이 (노트북에) 초보적 자료만 담아와서 진행했는데, 온라인을 통해 같은 DB에서 자료를 보는 것 말고도 필요한 (각 부처 등의) DB에 바로 접근해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차 통합의 기반을 넓혀가야 하며, 이를 염두에 두고 (장관들이) 노트북과도 친해져 주십시오.